

대구 주보

사순 제5주일 2017. 4. 2.(가해) 제2045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요한 11,42-43)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라자로의 무덤처럼 암울한 사회 안에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예제 37,12ㄹ-14

제2독서 로마 8,8-11

복 음 요한 11,1-45.

화 답 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यो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영재 바오로 신부 | 성산본당 주임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 누구나가 자신이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이의 고통을 모른 척하기 쉬운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너무나 바보 같은 삶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있는 라자로를 소생시키심으로써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라자로의 소생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찌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겠냐?’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느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시듯이,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십니다. 그것도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어찌면 죽음까지 무릅쓰며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부활을 있게 한 것이 아닐까요?

라자로의 죽음을 잠들음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잠으로 오해한 제자들의 모습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마르타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의 모습도 모두 우리들의 모습입니

다. 죽음이라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두려워 떨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께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듯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기도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같은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또 다른 마르타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이를 존중하며 섬기고, 나를 내어 주면서까지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마냥 바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하느님과 사람과 화해하기 위한 사순 시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실천으로 신앙을 고백해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필요**

우리들의 미래, **청춘(靑春)**들을 위해

구자균 다미아노 신부 | 청년국 차장

“우리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작은 나사’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를 여행하며 나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왔죠.”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어느 작가의 말입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청년(靑春). 중국의 오행(五行)사상에 의하면 봄은 청색으로 일컬어지고 젊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르익는 시기, 원기가 왕성한 시기. 그래서 젊음의 시절은 봄과 연결됩니다. 무르익고 왕성해야 할 신체와 정신의 젊은이들이 오늘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포기의 세대라는 꼬리표가 붙을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청춘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결혼을 도와주고, 인간관계를 개선해주는 것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우주, 지구별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에 동행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이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들을 열어놓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1. 기도: ‘젊은이성령기도회’, ‘1박 2일 피정’, ‘떼제기도회’, ‘파스카청년성서모임’ 등이 있고, 여러 수도회에서도 많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 따뜻한 마음: ‘필리핀선교와 봉사 체험’, ‘동대구역 무료급식 봉사’, ‘부계 성바오로청소년의집 봉사단’. 그 밖에 여러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3. 사회정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의 청년들의 활동을 추천합니다.

4. 공동체: ‘선택’, ‘비다누에바’, ‘청년리더십’, ‘약혼자주말’, ‘세계청년대회’, ‘아시아청년대회’, ‘한국청년대회’, ‘제3회 주교님과 함께하는 젊은이의 날’. 그밖에 각 본당의 청년회 활동을 추천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파스카청년성서모임’을 통해 성경공부를 하고 피정을 다녀온 후 봉사자가 되면서 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파델 구 미카엘라, 질문 하나, 네게 파스카청년성서모임은 어떤 의미이지?

미카엘라
요즘 저의 행복의 근원! 삶의 희망이 웃!!! 파스카하면서 생활이 행복해졌어요~~!! ㅋㅋ 아침 알람도 찬양노래구요~ 씻을 때랑 통학할 때 버스에서,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파스카에서 불렀던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불러요~~!!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파델 구 우와~ 고마워~ 말씀의 힘으로 미카엘라가 순간순간 나아가니 핫팅!!

미카엘라
제가 주변사람들을 나서서 챙기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파스카를 하다보니까 제가 가진 모든 걸 나눠주고 사랑하게 되더라구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삶의 의미를 만나려는 봄과 같은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살고, 죽고, 묻힌 곳 한티순교성지

대구에서 북쪽으로 28km,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산줄기로 치면 서쪽 가산과 남동쪽 주봉인 팔공산 사이에 위치하며 가산에서 동쪽으로 7km 떨어진 깊은 산 중턱에 자리한 한티는 해발 600m가 넘는 심심산골로 박해 때 교우들이 난을 피해 몸을 숨긴 곳이요, 처형을 당한 곳이며, 또 그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순교성지입니다. 일찍부터 신자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아 대구와 영남지방 교회의 터전이 되어 온 한티는 정확히 언제부터 신자가 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을해박해(1815년)와 정해박해(1827년) 때 대구 감옥에 갇힌 신자 가족들이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 이곳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신자들은 낮에는 사기를 구워 생계를 연명하거나 옥바라지를 했고, 밤에는 인근 원당마을이나 신나무골로 성사를 보러 다녔습니다. 이곳에 순교의 칼날이 들이닥친 것은 경신박해 때로, 가장 먼저 순교한 이는 현재 신나무골에 안장되어 있는 이선이 엘리사벳과 아들 배 스테파노입니다. 박해를 피해 신나무골에서 한티 사기굴로 피신해 왔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현장에서 작두날에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신박해가 끝나자 뿔뿔이 흩어졌던 신자들이 다시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더 큰 규모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피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문경 한실로 피난 갔다가 상주에서 순교한 서태순 베드로는 조카 서상돈 아우구스티노(국채보상운동의 창시자)와 가족들에 의해 이곳 한티에

안장되었습니다. 특히 대원군 부친인 남연군의 묘를 파헤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선참후계(先斬後啓, 먼저 참수한 후 상부에 보고함)령이 시행되면서 박해는 더욱 격화되었고 1868년경 봄 한티에 들이닥친 군사들에 의해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마을은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공소회장이었던 조 가롤로와 그의 부인 최 바르바라와 여동생 조 아기 등 40여명이 순교했습니다. 박해를 모면한 조영학 토마(조 가롤로의 아들), 박만수 요셉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무명 순교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한 줌의 재로 변해 버린 한티 공소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먼저 순교자들이 살던 마을(순교자묘역 대형 십자가 뒤편)은 ‘하느님을 증거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피가 서린 거룩한 곳’이므로 우리 같은 죄인이 밟을 수 없다’고 하여 바람맞이땅(현재의 초가집이 있는 곳)에 새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1882년부터 1883년까지 로베르(김보록) 신부님께서 경상도 지방을 순회 전교하시면서 한티에서 성사를 집행하셨는데, 이후 1900년 초에는 신자수가 무려 80여명에 이르기기도 하였습니다.

1967년 9월 대구대교구 액션단체 주관으로 순례가 시작되면서 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성지 개발이 이루어져 피정의집(1991년), 영성관(2000년), 순례자의집(2004년)이 축복되었습니다. 칠곡군에서는 지난해 2016년 9월 10일, 가실성당에서 한티성지에 이르는 45.6km의 ‘한티 가는 길’을 개통해 많은 순례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룩한 전례

전례(典禮, liturgy)라는 말은 그리스말 리투르게이아(라틴말 리투르지아)를 번역한 것으로, 본래 이 단어는 ‘백성을 위한 공적인 봉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전례는 하느님의 백성이 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의 십자가상 제사를 기념하고 하느님께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례는 우선 성체성사와 미사성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은총을 전달하는 다른 성사들과, 하느님께 교회가 바치는 공식 기도인 시간기도(성무일도)도 전례에 포함됩니다.

전례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일절 기념행사와 같은 세속의 예식은 다만 지나간 일을 되새길 뿐이지만, 우리가 전례 중에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할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업적의 효과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성체성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사제가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라고 말하면 실제로 죄가 사해집니다. 전례에 참례할 때는 주님께서 실제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끼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례는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례는 사사로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몸에 결합된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 전체

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제와 교우 단 두 사람이 거행하는 고해성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신자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죄를 사해주는 사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의 대리자요 그분의 몸에 결합된 모든 이들의 대표로서 고해성사를 거행합니다. 그러므로 전례 중에는 개인적인 소원이나 신심보다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전례를 거행할 때 서로

동작을 맞추고 소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주님의 지체로서 한 몸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코린 11,24)

전례는 신자 생활의 정점이며 신앙의 활력이 샘솟는 원천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형제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모두 전례 거행 중에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기도하고 전교하고 애덕을 실천해야 하겠지만, 가장 뚜렷하고 힘차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전례, 그 중에서도 특히 미사성제를 통해서입니다. 신자는 전례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체험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전례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참례해야 합니다. **필독**



3. 31(금) _ 글로벌 임상연구 정상회의 2017 참석

교구 및 기관 행사

4. 5(수) _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성경교육(13시,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의(19시, 교구청 별관 4회합실)
4. 6(목) _ 소공동체위원회 월례회(11시, 교구청 별관 3회합실)
4. 8(토) _ 제2회 노인사목 세미나(15시,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파스카 팀봉헌 미사(19시 30분, 대안성당)



출애굽기 120년을 관통하는 성경 통독 영화

십계 : 구원의 길 4월 13일 메가박스 단독 개봉!

- 주보 제시 시 **2,000원** 즉시 할인 (현장 예매시 적용, 중복 할인불가, 관람 후 적용 불가)
- 10명 이상 단체 **5,000원** 관람 가능 (현장 예매시 적용, 중복 할인불가, 관람 후 적용 불가)
- 50명 이상 극장 대관 서비스는 관람일 10일 전에 문의. 예약 및 문의: (070)8707-2169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12시간을 그린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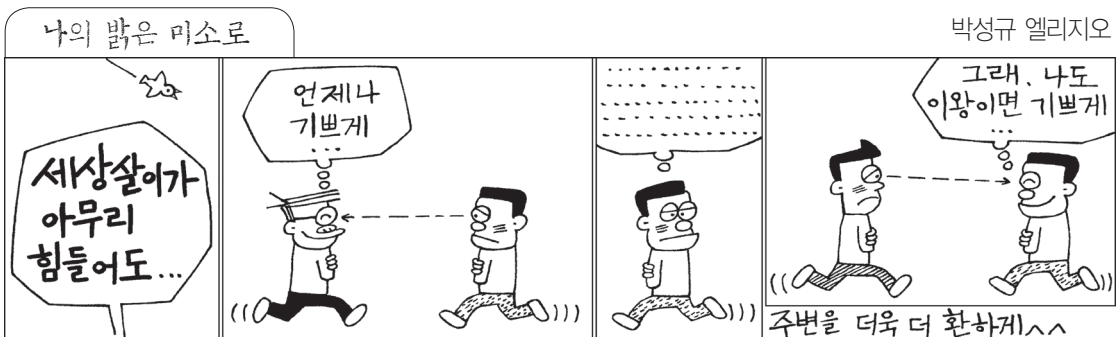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4월 13일 CGV 단독 재개봉!

- 본 주보 지참 혹은 사진 촬영 하여 해당 이미지 제시 시, 1인당 **7,000원**에 관람 가능 (대구, 대구수성, 대구스타디움, 대구아카데미, 대구월성, 대구한일, 대구현대, 포항)
- 30명 이상 단체 **6,000원** 관람 가능, 예약 및 문의: 053)784-0797~8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하루에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화장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겠습니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4월 3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밀알빛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4월 3일(월) 11:00 계산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4월 4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4월 3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4월 5일(수) 19:00 용강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9(일) 14:00, 부산 본원

대상: 선교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문의: 개인연락 가능,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4.18(화)~19(수)

장소: 효령하늘집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예수회 4월 성소 식별 피정

기간: 4.7(금)~9(일)

장소: 예수회센터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베네딕도수녀원 성삼일 전례 피정

기간: 4.13(목) 14:30~16(일) 14:00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 피정비: 16만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 피정

기간: 4.13(목) 16:00~16(일) 13:30

장소: 왜관피정의집 / 참가비: 21만원,

농협 301-0087-0776-61

문의: 왜관수도원, (054)971-0722

제48차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4.21(금)~23(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홈페이지 참조

젊은이 피정

기간: 4.28(금) 19:00~30(일)

장소: 청주 예수고난관상수녀회

주제: 삶의 그림자 풀어주기

대상: 미혼 여성 / 회비: 2만원

문의: (043)295-5940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4.17~19 / 4.20~22 / 4.25~28

5.2~4 / 5.6~8 / 5.11~13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청년 성경통독 체험(마르코)

기간: 5.20(토) 15:00~21(일) 14:00

장소: 소보동지피정의집

회비: 무료(한 본당 3명 제한)

신청: (010)9778-2208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 세미나

기간: 5.5(금) 11:00~6(토)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영성원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회비: 5만원(사전접수자만 피정 가능)

문의: (010)5490-5345

부산교구 성령 새신 대회

일시: 4.7(금) 9:00~18:00

장소: 주교좌 남천성당

주례: 황철수 주교, 지도사제단

강사: 황창연 신부, 윤민재 신부

문의: 부산 영성익집, (055)382-9465

39차 이스라엘, 이태리 성지순례

기간: 5.18(목)~31(수) 13박 14일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010)5607-2046

<http://www.terrasanta.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 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발아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대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나비피부과
(여드름/기미/모공)
피부과 전문의 / 원장 김창욱(라파엘)
053.253.7582
동성로 롯데영플라자 맞은편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전 강 검 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아유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오로)
피부 질환 아토피 | 알레르기 | 시아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 달성군청)
1호선 성남역 3번출구 T.053) 651-8800

전인병원
통합의료전선
병원장 손기철 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문의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완수술 후, 암 재활도 전인병원
일반 검진 일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지정 병원
진료 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과, 한방내과, 침구과

리노한의원
| 내로 다시 말기 | RE-KNOW KOREAN MEDICINE CLINIC
허리·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면역치료,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치료
야간진료 : 화, 목 9시
원장/한의학 박사 김 의 군(리노)
☎ 755-5575, 559-5255
범여대성당 1층 상가 (범여대 2번 출구)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일 (아 네 스)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010-2624-0322
경산조폐공사 정문 앞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4월 2일(일)은
(故) 황주철(로제리오) 신부
선종 4주기입니다.

4월 2일(일)은
(故) 서영민(알렉산델) 신부
선종 3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기간: 4.18(화)~19(수)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 선착순 60명
마감: 4.9(일) / 피정비: 6만원
문의: 교구 노인담당, 250-3077

군중후원회 일일 피정

찬양과 말씀 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5.15(월) 9: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대상: 군중후원회원 / 무료
신청: 본당 지회장 및 후원회 사무실

남산성당 사순 특강

일시: 4.4(화) 20:00, 남산성당
강사: 서울 새천년복음화학교
교장 정치우(안드레아)
주제: 새로운 복음화

바오로딸 테클라 성소 기도 모임

일시: 4.9 매월 둘째주 일 14:00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2층
대상: 하느님과 내 삶의 소리를
듣고 싶은 20대 여성
문의: (010)2503-5185

교육 | 모집

공의회학교 기초과정 개설

일시: 4.24~7.3 격주 월
장소: 계산성당
대상: 전신자
회비: 8만원(공의회 문헌 포함)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250-3163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4.7(금) 17:30~9(일)
4박 5일: 5.15(월) 14:00~19(금)
8박 9일: 4.20(목) 14:00~28(금)
에니어그램: 4.7(금) 15:00~9(일)
문의: (031)946-2337~8

성가어르신복지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가족같이 생활하는 소규모 요양시설(28명)
위치: 칠곡군 동명면(동명성당 뒷편)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054)976-8123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7_1차)

일시: 4.8(토) 13:3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려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류마티스관절염의 최신치료
강사: 류마티스내과 최정윤 교수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자: 5.8(월), 발칸반도
경비: 435만원(12박 13일)
일자: 5.11(목), 이스라엘 일주
경비: 335만원(8박 9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강사: 4월 천지만(베드로)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채용 | 안내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홍성출(프란치스코), 하현숙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신랑각시 결혼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1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말기암 통증 및 증상 조절
재능 및 기타봉사자 상시 모집
사랑나무원원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동구시장 맞은편)
24시간 상담 · 입원 (053)217-9500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여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여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여역 6번 출구)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테리어 필름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감사선물 · 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